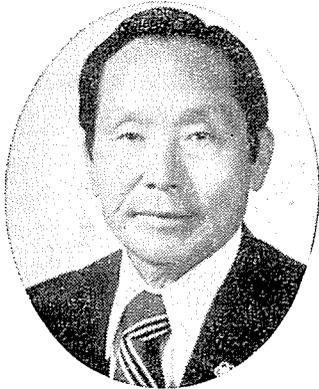


10年の基盤위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金 允 基 會長

親愛하는 代議員 여러분!

오늘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第11回 定期總會를 맞아 尊敬하는 科學技術處 崔亨燮長官任과 貴賓여러분 그리고 科學技術界 先輩이신 名譽會長 顧問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勞苦의 結晶으로 10年이라는 年輪을 쌓아 올렸으며 이제는 139個 學會와 團體의 求心體로 成長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75年度는 國內外的인 不況의 連續속에서 憵한 어려움을 總과된 叡智로서 잘 克服하였고, 列強들의 마이너스 成長 乃至 零成長을 넘어서 7% 相當의 經濟成長을 이룩했다는 것은 實로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世界는 資源의 危機意識으로 緊張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찾기에 汨沒하고 있으며 資源節約의 깊은 關心속에 새로운 科學技術로 對處해 나가고자 寸陰을 다투고 있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科學技術界도 이 難局을 打開하기 爲하여 先進技術의 導入과 技術應用및 革新에 精進하였으며 技術의 土着化를 期하고자 研究를 거듭한바 豐饒한 學術活動과 實績을 걸은바 있습니다.

새해에 접어들어 온 國民에게 希望을 안겨준 우리의 賦存資源 探知 消息을 實感하고 享有할 수 있도록 開發에 臨해야 겠읍니다. 油徵과 우라늄 토륨등의 發見은 工業韓國의 展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科學技術人 이 地下資源의 開發과 活用に 발벗고 나서야 겠읍니다. 우리의 技術과 努力으로 成果를 올려야 겠읍니다. 또한 우리의 技術人力을 再訓練하여 用役輸出에 熟練된 技術陣을 海外에 進出し킬수 있도록 技能技術人力 開發 教育訓練 센터를 세워 韓國人의 뛰어난 技術 技能力을 世界 萬邦에 펼쳐야 겠으며 外貨獲得의 一翼을 擔當토록 推進해 나가야 겠읍니다.

科技總은 지난해 會員 여러분들의 聲援에 힘입어 計劃되었던 事業을 誠實히 遂行하였습니다. 在歐科學技術者招請 學術綜合 심포지움을 成功裡에 마쳤으며 韓國科學技術 振興과 風土造成에 한걸음 더 내 디딜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 하겠읍니다. 重化學工業에 主軸을 이루는 金屬工業 機械工業과 科學技術教育의 懸案問題가 國內外 500餘 碩學을 통해 發表되었읍니다.

科學의날 行事에 併行해서 有功 科學技術者에게 褒賞되는 科學技術賞이 昨年에는 科學賞 技術賞에 이어 技能工의 優待措置로 技能賞制度가 新設되어 現場技能人들의 士氣를 돋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 科學技術界의 活動은 크게 脚光을 받았습니다. 光復 30周年 記念을 期해 各學會에서는 200餘回の 學術發表 세미나와 60餘回の 심포지움, 30餘회외

새 里程標 세우자

業技術指導를 實施하였으며 30餘回の 産業視察, 8次에 걸친 國際會議을 갖인바 있습니다.

또한 科學技術用語 制定事業도 豫定대로 作業을 끝내고 今年 4月에는 科學技術用語 第1輯을 發刊하게 됩니다.

唯一한 綜合 科學技術誌 月刊 “과학과 기술”도 通時에 發行 配布되어 科學技術界의 代辯紙로서 口實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技術奉仕活動 事業도 큰 成果를 견우었습니다. 9個道團의 組織을 통해 農漁村의 科學技術化를 善導하여 所得增大에 寄與했으며 特히 1마을 1科學技術者 結緣 事業이 目標 140個마을 結緣을 完遂하였고 今年에는 200個마을로 擴大結緣하게 됩니다.

새마을 事業의 科學技術化의 一環으로 새마을技術 便覽·壹萬部를 增補發刊하여 全國에 普及하였습니다.

周知하지는 바와 같이 새마을技術奉仕團의 活動은 새마을運動과 農漁民의 所得增大 및 環境改善에 寄與된바 있어 지난해 12月 10日 全國새마을指導者大會에서 專門委員과 團員 두분이 大統領 및 國務總理 表彰을 各各 받았습니다.

또한 새마을技術奉仕團 弘報映畫를 製作 全國 9個道에서 上映하고 있어 새마을技術 奉仕團의 活動範圍가 擴大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食糧增産委員會와 資源開發委員會, 重化學工業 對策委員會가 研究會合을 거듭하여 政策的 方向提示를 한바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지난해 科學技術會館의 5층以上의 工事を 完成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今年에는 成完할수 있도록 豫算을 確保하게 되었습니다.

今年 科技總 創立 10周年 記念日에는 落成의 기쁨을 같이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科技總은 지나간 10年間의 經驗과 키워은 底力을 76年度에 떠 나감으로서 하나 하나 結實을 거두는 事業을 하게 될것이며 科學技術界의 總本山으로서의 使命이 期待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科學技術人이 產學協同을 鞏固히 하고 80年代를 向한 執念을 實現함으로서 不遠 先進團에 合流하게 되고 國力은 날로 培養될 것입니다.

科技總은 10年의 週期를 넘게됩니다. 이제 學會와 團體를 爲해 名實相符 總聯合會로서 일할수 있는 風土造成의 基盤이 어느程度 세워졌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科學技術人이 總和團合을 이루고 새 進路와 새 里程標를 向해 力量을 傾注하여 研究하고 創出하고 自立하는 科學技術 風土造成化에 臨할때 富強한 韓國相을 目前에 期約하게 될것입니다. 代議員 同志여러분 오늘 第11回 定期總會에 臨하여 모든 審議案件에 尊意를 사 되오니 充分한 討議와 建設의 인 뒷 받침을 當부드리며 議案審議에 協調하여 주시고 倍前의 指導와 鞭撻을 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겠습니다.

아울러 本 聯合會의 發展에 積極支援하여주시는 行政府와 協調해주신 產業界에 感謝를 드리고 우리 科學技術界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 및 團體의 隆昌하심과 여러분 家庭위에 幸福이 있으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